

조선시대 역사지리정보의 전자지도화와 그 의의

An Electronic Mapping of the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of Chosun Korea

김종혁(고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, kjhgeo@korea.ac.kr)

문화는 다양한 요소가 혼재·결합·융합되어 매우 방대한 영역과 양태로 나타난다. 따라서 한 지역 또는 한 시대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.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화요소들은 비록 명확하진 않을지언정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좌표로 존재한다. 유물·유적과 같은 가시적인 것은 물론이고, 구체적인 물증이 사라진 사건이나 현상, 개인 또는 집단의 사유체계조차도 시간축과 공간축에서 한 점으로 찍힌다. 공간좌표가 부여된 역사시대의 모든 정보들은 역사지리정보가 된다.

역사·문화지리정보를 전자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보의 방대함 때문이다. 더구나 지리정보는 지도로 표현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. 결국 조선시대 역사지리정보를 전자지도로 만든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방대한 문화정보를 시간(Time)·공간(Place)·주제(Subject)라는 3차원 입체구조 속에서 각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. 접근 방식의 다차원적 조합을 통해 조선시대 내 임의의 시점 임의의 지역에서 발생한 제반 문화현상이 훨씬 용이하게 포착될 것이다.

예컨대 조선시대의 인구[주제]는 항상 특정 시간 및 공간 좌표를 갖는다. 이 주제가 각 시간, 공간, 시간·공간, 타 주제와 결합될 때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. 인구의 분포라는 고정된 주제 하에서 인구분포의 시계열적 변화(chronological series of cross-section)를 볼 수 있으며, 역으로 단일 시간단면(single cross-section) 상에서 다종의 지역별 검색도 가능하다. 주제와 공간 간의 관계에서도 한강유역·해발고도·읍격 따위의 지역[공간] 단위를 고정변수로 한 주제 접근이 가능하며, 다종의 주제가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다.

조선시대 행정구역을 군현 및 면단위까지 복원하고 지명사전[Gazetteer]과 지리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자연·역사지리정보를 구축하는 데에 일차적인 선결과제가 될 것이며, 이를 기반으로 역사, 문화, 사회, 경제, 정치, 행정, 군사, 민속 등과 같은 인문학적 내용이 순차적으로 구축되면 조선시대 또는 한국학·한국문화를 이해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최적·최다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.